

“1년 이상 준비하고 창업해야... 절대 조바심 내면 안돼요”

은퇴 후 生을 말하다 <4>

<제2부> 인생 2막 여는 사람들

① 공직 퇴직 후 누룽지 카페 창업 김영환씨



누룽지나무 캐릭터.

아침 끼니 거르는 동료들 안타까워 생소한 누룽지 카페 창업
나주산 현미·무등산 약수 등 국내산 고집... 부드럽고 고소해
입소문 타고 설 명절 예약 폭주...카페는 동네 사랑방 변신
흡소핑 제안 거절...새로운 재료 접목 창의적 메뉴 개발할 것



38년간의 공직생활을 은퇴한 뒤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누룽지 카페를 창업한 김영환 대표가 직접 만든 누룽지를 들어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절대로 준비없이 창업을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1년 이상 준비하고 또 조바심을 내서는 안됩니다.”

준비 없이 감행한 창업은 실패로 귀결되기 일수이다. 김영환(62) 누룽지 나무 대표의 준비된 창업자에 속한다.

김영환 대표는 인생 후반부를 고민하던 중 지난 2017년 9월 광주시 남구청 문화교 육사업단장을 끝으로 38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친 뒤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생소한 누룽지 카페인 Cafe Bannie를 창업했다. 김 대표는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와 함께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결국 바리스타였던 딸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카페를 연 것이다.

김 대표는 “퇴직을 1년 앞두고 내가 몰라 나지 않으면 동료 후배들의 승진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돼 부서 해체를 3개월 앞두고 그만두었다”면서 “실제로도 퇴직을 앞두고 여러가지 제안이 들어왔고 고민 끝에 광주의 한 장례식장의 부대표도 잠시 맡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지켜봤지만 대부분은 아침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다. 그래서 항상 안타까웠고 이들이 아침 식사대용으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누룽지 카페를 창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누룽지카페를 창업하면서 가 격을 떠나 수입산이 무조건 국내산으로 고 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땅에 자 라는 신선한 곡물로 누룽지를 만들 생각이 다”고 덧붙였다.

나주산 현미와 국내산 돼지감자, 귀리 등과 무등산 경열사 인근의 약수물을 직접 공수해 직접 매장에서 어떠한 첨가물 도

넣지 않는 누룽지를 만들어 2000원(7~8개 80g기준)에 판매하고 있다.

창업 초기 때만 누룽지 제작에 실패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지금은 김 대표만의 비법으로 시장에서 판매되는 누룽지와 달리 부드럽고 고소한 누룽지를 만들고 있다.

김 대표는 “창업을 하고 1달 가까이는 실패한 누룽지로 끼니를 떼웠다”면서 “그때의 실패를 토대로 최적의 물량 등 최적의 재료 비율을 찾아내 지금의 누룽지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가 근처로 주변에 카페가 없어 Cafe Bannie는 인근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카페에서 판매한 누룽지가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이번 설의 경우 누룽지의 예약 주문이 쏟아져 연휴동안 기계를 풀로 돌리며 겨우 주문량을 소화할 수 있었다.

그는 “흡소핑 등에서 함께 판매해보자는 제안도 들어왔지만 거절했다. 당장의 이윤보다는 실속이 있는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면서 “새로운 재료를 누룽지에 접목해 창의적인 메뉴를 개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업과 달리 교육까지 포함해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보장돼 미리 인생 2막을 미리 준비할 수 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서 “정년을 앞둔 공무원들이 찾아오고 조언도 구하지만 그 때마다 “지금 있는 시간을 허투리 써버리지 말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창업을 도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현미 누룽지를 만들고 있는 김영환 대표.

은퇴 후 창업, 금융비용 등 고려해야

직장인 출신 자영업자 67% 평균 5930만원 대출 창업 후 수입 줄어... “올해에도 매출 감소” 27%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 후 노후 생활이 길어졌다. 이에 따라 은퇴자들은 노후 준비를 위해 재취업과 창업 등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재취업보다는 손 쉽게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50대들이 노후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퇴직금 일부에 빚을 얻어 창업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이렇게 자영업자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만, 경기 침체 속에 창업 초기부터 자금이 시달리는 등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이 발간한 ‘2019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50대 이상 경제활동자 중 13%는 3년 내 은퇴를 예상했다. 하지만, 2명 중 1명(51%)이 은퇴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의 월 지출액은 평균 282만원인데, 은퇴 후에는 242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인 지출액은 교육비(11만원) 감소액이 가장 컸고 식비(8만원)와 교통비(8만원)도 대폭 줄었다. 반면, 의료비(12만원)나 여가활동(9만원), 가사서비스(1만원)는 늘어난 것으로 봤다.

은퇴 후 월 소득은 평균 147만원(연금 소득 113만원·재산소득 25만원·가족 지

원 9만원)으로 은퇴 후 예상 지출(242만원)의 61% 수준에 불과해 노후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050세대 직장인은 은퇴 후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들은 빚까지 안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내 창업자 10명 중 8명은 과거 10년의 직장생활 경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장을 다닐 때 월 320만원을 받았지만, 창업 이후에는 301만원으로 수입이 19만원이 나 줄었다.

반면 대출은 크게 늘었다. 직장인 출신 자영업자의 67%는 평균 5930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매월 80만원씩 상환했다. 이들의 43%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급전을 쓴 경험이 있는 사람도 63%나 됐다. 직장인 출신 자영업자의 34%는 지난해 매출 감소를 경험했고, 27%는 내년에도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창업 전문가들은 창업을 꿈꾸는 은퇴자나 은퇴 준비자들은 창업할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뿐만 아니라 창업에 투자될 자금과 용자금에 따른 금융 부담 비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